대도시 주거재생사업과 교육시설의 변화

Evolut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for Urban Housing Renewal of Post Industrial Cities

김 우 영 /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Kim, Woo-Young / Professor, Department of Architecture at SungKyunKwan University
wykimm@skku.edu

1. 서론

지방자치가 진행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변화는 참여에 대한 정책적 기반이 크고 작은 지역단위에서 동시에 형성되는데 따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데 있다. 사회가 공동체의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제 사회는 결과보다 목적에 의의를 두고 개인의 능력보다 다양한 구성원으로 형성되는 단체를 결성하여 운영하는 과정에 가치를 둔다. 공공의 담론은 상업주의에 입각한 상품보다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견제를 통해 도덕의 힘을 기초한 좋은 삶의 관념을 공유하는데 집중한다. 현재 진행되는 커뮤니티의 환경개선의 주된 사업대상은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다루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장소성에 입각해 공동체가 추구하는 사회적 협정의 기본조건에 대한 공정성이 현실에서 선택의 자유와 관계되어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다루고 있다. 이는 이전 산업화시대에 당연시 되었던 강압과 불공정 속에서 제한된 선택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기도 하다.

대도시에서 산업화와 후기산업화는 대개의 경우 경제구조 개선의 불가피한 결과로 인식된다. 국가 또는 지역에서 후기산업화 자본의 형성과 확대에서 파생된 결과들 가운데 도시의 확대를 재조명하는 주거재생은 주요한 사회변화의 요인들의 결정체로 간주될 수 있다. 현재 전국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주거재생사업에서 참여의 담론이 가지는 형이상학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유지해오던 유토피아에 대한 사회교육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본 고는 참여의 진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 지역사회의 교육기반이 가지는 공공적 장소성의 단편적 접근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진행되는 도시주거재생에서 교육시설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의 가능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2. 커뮤니티 지역교육

2.1 지역공동체조직의 기업화

서울시는 현재 새로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실험을 시작하였다. 개발의 잣대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에서 도시환경개선을 진행하기 위한 시도들을 차근히 진행하고 있다. 거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주도형 도시재생을 통해서 커뮤니티가 지속가능하게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지방자치에서 지역단위 공동체가 구성하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은 자치적인 규범을 매개로 진행된다. 지역의 유대를 강화하고 결속을 다지는 기초는 16세기 초 향약과 유사하다. 예로서 수원시평생학습원은 동장, 주민자치위원, 통장 및 시민이 참여하는 '누구나학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특정 자격요건을 배제한 강사들이 독자적인 지식과 경험을 이웃과 공유하는 신개념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1] 대전시 대덕구 평생학습원의 경우 학습마을추진위원회, 학습마을매니저, 학습마을만들기에 관심을 가진 구성원을 조직하여 지역의 현안문제를 다루고 마을을 변화시키는 주민모임을 운영하고 있다.[2]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중등학교 및 대학교로 분류되어

1) 이민우, "주민이 만드는 마을학습의 시대" 수원시평생학습관, '누구나학교' 사업제안 설명회 개최, 뉴스피크, 2013.05.01
2) 대덕구평생학습원 참조자료
http://lll.daedeok.go.kr/sub/html/center/center_03.jsp

연구되어왔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 등의 교육환경에 대한 사항들도 동일하게 분류될 수 있다. 현재까지의 학교는 교과과정을 통해 일정수준의 객관적 교육 성취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준을 중심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의 '누구나 학교'는 지역 유대의식을 공유하는 틀을 제공하기 위해 향토역사 및 문화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전달하는 보다 자유로운 방식의 학습을 필요로 한다.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고 동네에서 이웃이 모여 의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은 정기적인 주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형식으로 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일반적인 지역 활동조직은 비영리단체의 성격을 유지하지만 최근 사회적 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새로운 개념의 조직은 실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기업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선출되는 조직의 대표들은 조직과 관련되는 지역의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의와 재정지원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게 된다. 대부분의 지역문제가 민원의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되는 경우, 행정기관의 담당부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제기되는 집단이기주의적 요구들에 시달리게 된다. 지역단위의 규모가 커질수록 민원은 직접 도시계획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은 미치게 된다. 도시의 환경개선이 지역의 민의를 대표 할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의에 앞서 민원과 도시계획의 상관관계에서 제기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단체 간의 상호득실에 대한 이해나 협의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힘을 얻고 있다.

2.2 지역공동체의 장소적 모순

지역의 정의는 개인의 활동범위에 따라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대부분의 개인에 있어서 지역의 단위는 근린단위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인근지역에 학교가 있는 경우 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인과관계가 전통적으로 지역단위의 기본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이 경향은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교통에 연계된 생활권의 개념을 의미하는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다. 향후 지역학습의 개념을 물리적 경계에 둘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공동학군의 지정에 대한 제도 변화 측면에서 고려되어왔다. 국내의 경우 수도권은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경기지역을 포함하며, 생활권의 측면에서 교통수단의 개선에 따라 고속철도로 연계되는 시들로 확대되어 있다. 수도권의 지역민원은 해당지역과 서울의 공동관심사로 단순히 위성도시 자체의 과제가 될 수 없다. 사례로 통근을 위한 서울과 위성도시 간의 이동은 대심도 교통망 구축이나 지하철 개통, 광역버스 운행 등 일상생활에서 가장 우선적인 지역민원으로 조사된다.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할 경우 지역과 서울을 연계하는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은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의 경제규모에 비례하는 상품의 다양성은 지방으로 대별되는 지역상권이 경쟁력을 가지고 대응하기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지역 구성원은 서울로 이동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서비스를 포함한 상품구매가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서울이 가지는 힘은 대부분 상업지역의 경쟁력에 있다. 지방자치구역의 주요거점으로 인식되는 상업지역은 지역 근린단위에서 이용되는 소생활권을 담당하는 수준에서 답보하고 있다. 지역공동체의 기반과 구성원의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되는 지자체의 민원에서 대도시 주거재생의 근본적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대의 민주주의가 가지는 선택적 참여의 구조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즉 민주적인 절차에서 결정된 사항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수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적 참여가 가지는 구조적 모순은 도시재생에서 참여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대변한다. 모순은 새로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위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3. 근린단위 재생사업 현황

3.1 근린단위 분화

도시지역의 커뮤니티가 새로운 단위로 재편되고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실효성을 가지던 용도용적제도의 적용은 도시의 영역확대에 수반된 도심과 부도심 또는 위성도시의 분리과정에서 대중교통을 통한 효과적인 연계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미시적 수단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도입을 가능케 했다. 결과로 거시적 단위의 도시계획이 다루기 어려운 지자체 단위의 도시정비체계를 개발함으로써 도시에서 발생되는 근린단위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울의 경우 7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도시차원의 직주분리 현상이 주거를 중심으로 한 대단위 택지개발을 통해 물리적으로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도시의 오폐수처리를 담당하는 기반시설이었던 한강과 지류의 주변이었던 마포, 동부이촌동, 반포, 목동, 압구정, 잠실, 상계 등에 근대화된 대단위 근린주거가 공교육시설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구성하며 균질하게 분포되었다. 당시 근린주거개발은 교육,

그림 1. 학습공동체 동피랑 벽화마을 도시재생 사례 교육프로그램 참여

치안, 행정서비스에 국한된 최소단위의 공공시설을 포함하였다. 공교육을 위한 초·중고등학교의 편제와 유사하게 파출소와 경찰서의 편제 및 동회와 구청의 편제 등에 기초해 전체적인 도시가 계획되고 운영되었다. 그 결과 도시는 중·저밀도의 주거지역과 고밀도의 상업지역 간의 이동을 전제로 형성되는 생활권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도시주거재생은 이러한 측면에서 산업화과정에서 계획적으로 확대되었던 도시공동체의 생활권을 세분화하고 직주근접의 근린단위로 재구성하는 도시의 물리적 재구성을 통해 근대 이후 절대시되었던 용도용적제의 도시조닝(Zoning)이 가지는 후유증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3.2 근린단위 재구성

서울의 도시구조 재편은 재개발, 재정비, 뉴타운 및 지역균형발전 등의 도시계획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는 도시조직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대개의 경우 지역 거주자의 생활기반을 이주를 통해 전면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시조직의 재편이 경제적 측면에서 투자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적 측면에서 사업추진의 주체와 부동산의 소유주 및 이용자 또는 점유자 간의 대립이 첨예해지는 현상을 보여 왔다. 이러한 갈등구조는 도시의 점진적 개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그 과정에서 해당지역의 거주자는 재난에 대비한 방재나 위생적 환경을 위한 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구급차량의 접근이나 생활에 필요한 운반이 용이하지 않은 낙후된 환경에서 이주를 전제로 진행되는 지역개발을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최근 10년간 동일한 방식에서 진행되던 도시구조 개편은 지방자치시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 거주자의 비중이 증대되고 민원의 형식으로 집단화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장기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정수준 이상의 주택보급율과 현저히 저하되는 출산율을 고려할 때, 기성세대가 절대시하던 주택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선택적인 가치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근린단위의 개편은 정착을 위한 주거와 이주를 전제로 하는 거주를 동시에 수용하는 방향에서 새롭게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교육기반 도시재생 정책

4.1 근린단위 지역 교육공동체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자치구에서 지역단위 교육기반을 세분화하고 인근지역의 공교육시설을 활용해 지역 거주자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강남교육청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와 서초구에 위치한 10개 방과후 학교 거점학교에서 정규수업인원(928명)에 비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학생(1126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과후 학교에서 물리탐구수업이 정규수업에서 미흡했던 각종 실험을 할수 있다는 점이나, 교과서가 아닌 교재를 이용해 정규수업시간에 국한되지 않게 오랜시간 집중해서 주제별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되었다.[3] 해당지역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천안지역 시내권 방과후학교의 경우 초등학교는 87%로 높게 나타나지만 중고등학교는 각각 81%와 75%로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율을 보인다. 특히 고등학교 입시가 있는 지역 특성상 중학교에서는 입시생의 경우 25% 미만의 학생이 프로그램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학원가에 인접한 중학교의 경우 12%대의 낮은 참여를 나타내고 있다.[4] 세종시의 경우 2013년 여름방학기간 학생이 찾아가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거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선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또한 소수의 수강생으로 운영될 수 없었던 프로그램이 대상지역의 확대로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5]

4.2 교육기반 근린단위 환경개선

교육기반은 노후설계, 인성 및 적성, 문화 및 취미, 직업 및 가사, 스포츠, 컴퓨터 및 인터넷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3) 김기용, 학교보다 커진 강남 방과후학교, dongA.com, 2008.5.30
4) 이재범, 천안지역 도심 학부모 “방과후학교? 아직은 학원”, 충청투데이, 2013.5.29
5) 임현선, 여름방학에 찾는 방과후학교 참가해 볼까, 씨티뉴스, 2013.5.25

요구되는 지식나눔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조마초등학교는 '돌아오는 학교, 행복한 학교'를 위한 작은학교 가꾸기 사업으로 배드민턴 교실을 개설하였다. 송옥수교장은 학교교육의 공동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주민이 스포츠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소규모 농촌학교를 살리는데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6] 아산성심학교는 2013년 중부권 지적장애인기능경진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데 대해 학생과 지도교사가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집중한 결과라고 자평하고 적성과 장애특성에 맞는 직업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7]

방과후학교 시범사업은 학교가 아닌 교육법인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조선미디어그룹 교육법인 조선에듀케이션은 교육부 주관 '언론기관 참여 방과후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체계적 학습법을 기초로 진행되는 자기주도학습교실과 창의력증진을 위한 '창의융합수학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전국 초중고교에서 개설하는 준비를 마쳤다.[8]

서천초등학교는 로봇과학교실을 매주1회 운영하고 있다. 기존 과학 교구재가 아닌 전자기기를 이용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과학에 대한 미래를 소개하고 있다.[9]

지역학습공동체에 기반을 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출현은 향후 사회가 지향하는 지식, 문화, 교양을 위한 활동의 주체가 되는 참여조직의 형성을 의미한다. 이제 새로운 참여의 시대는 보다 구체적인 활동과 주제에 의해 편제되는 공동체의 조직을 가속화하는 측면에서 주목되고 있다. 보다 실용적인 조직의 구성은 물리적 경계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던 이전의 학구제 교육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진행방향은 집단의 차별화보다 연대와 소속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정체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거주와 주거의 개념이 이원화되는 현대 도시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현실은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되어야 할 사회적 현상이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 지속적인 지역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아이덴티티(identity)의 확립에 대한 노력과 1인 세대의 증가와 개인화된 생활방식을 수용하는 커뮤니티의 개선을 다루는 도시주거재생 과제의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이는 지역사회가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할 과제이다.

5. 결론

지역학습공동체의 출현은 오랜 역사를 지닌다. 동일한 지역에서 진행되는 학습공동체에 중심에는 우리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보다 다양한 활동의 공유를 통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는 도시재생의 화두는 참여를 기반으로하는 지역학습단위의 지속성을 담보로 하고 있다. 많은 구성원의 참여가 거름이 되는 지역단위의 재생은 산업화와 맞물려 높아졌던 이웃간의 담을 허물고 보다 보편적인 삶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소통과 참여는 이제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 되었다. 이제 교육시설의 방향은 사회가 요구하는 소통과 참여를 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에서 재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커뮤니티가 교류를 활성화하는 교육시설 활용방안을 계획하고, 둘째,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지역학습공동체의 확대를 실시하고, 셋째, 거시적 지역과 미시적 근린단위를 포함하는 주제별 학습공동체의 조직이 병행되는 과정에서 보다 유연한 지방자치단위의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는 통합 교육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전문단체, 사회적기업, 학회 또는 협회의 지원과 관련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시민단체 및 주민자치회에 기반을 둔 지역학습공동체의 형성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1. Kimm, Wooyoung (2008). Network Learning Community: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Elementary and Lifelong Education, Harvard University, 2008.
2. Blunt, A. (2007). Cultural Geographies of Migration: Mobility, Transnationality and Diaspora,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 31, no. 5, 684-694.
3. Brown, S., & Duguid, P. (1991). Organizational Learning and communities of Practice: Toward a Unified View of Working, Learning, and Innovation, Organization Science 2, pp.40-57

6) 김문환, 학교공동체가 함께하는 배드민턴교실, 김천인터넷뉴스, 2013.5.29
7) 오균선, 아산성심학교 '중부권지적장애인 기능경진대회 금메달' 획득, 충청경제일보, 2013.5.29
8) 교육부 주관 시범사업 운영 조선일보 방과후학교 신청하세요, 2013.5.27
9) 이병렬, 서천초, 방과후학교 로봇과학교실 인기, 충청시티신문, 2013.5.19